濟州島硏究 제50집
2018. 8. pp. 45~78.

제주방언에 대한 관심, 연구 동향과 과제*

오 창 명**

국문요약

제주방언에 대한 관심은 조선시대부터 있어왔는데, 대개 독특하거나 특이한 어휘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초반부터 일본인 학자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주방언의 음운과 어휘, 문법 요소 등에 대해 연구를 펼쳤다. 그러나 일본인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제주방언의 특징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펼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학자들도 제주방언에 관심을 가졌는데, 일본인 학자들만큼 연구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심에 그쳤다. 그 가운데 석주명은 비전문가로서 제주방언에 관심을 가져 제주방언을 수집하여 자료집을 냈다. 어휘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언어학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휘적인 면에서도 언어의 기원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석주명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고 있다.

광복 후에는 이숭녕이나 김완진, 이기문 등과 같은 학자들이 제주도에 들

* 이 글은 제주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약간 바로잡아 고치고 기운 것이다. 익명의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에 힘입은 바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고마움을 표한다.
** 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어와 학술조사를 행하여 연구 결과를 남기고, 박용후와 현평효 등이 제주방언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등 업적을 남겼다. 그 뒤를 이어 강근보, 김홍식, 강정희, 강영봉, 송상조, 고영진, 고동호, 정승철, 오창명, 김순자 등이 연구를 진행했거나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모음의 연구 결과, 음운에 대한 것은 연구자들조차 '에'와 '애'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정확히 구분해서 말하거나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아울러 '의'의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ᄋᆡ'와 'ᄋᆞ'의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

형태의 연구 결과, 상과 관련 있다고 하는 '-앐/엀-'의 표기는 표기법과 관련해서도 혼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방언의 상도 어휘적 상과 문법적 상을 나누고, 문법적 상에서 진행 상황과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동사 어미는 물론 구문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문법적 상과 시제(tense), 양상(modality) 등과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어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미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 문화와 관련하여 대문(바깥대문)이 없다고 전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이 대문(바깥대문)과 관련한 말이 '정낭'이라 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정낭'은 '정'의 한 부속품에 불과한 것이다.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완벽하게 풀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관습적인 의사소통이나 감정 표현의 측면과 아울러 관습적이지 않은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관습적인 의사소통의 측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제주방언의 문장도 제대로 표현되어야 하고 알려야 한다. 가령 정중하게 맞이하는 뜻으로 쓰는 표준어 '어서 오십시오'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을 '혼저옵서예'라고 하는 한, 제주방언은 제대로 연구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다. 정중하게 맞이하는 뜻으로 제주방언 '혼저옵서예'는 절대로 쓰지 않았다.

제주방언을 제대로 수집하여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수집된 제주방언을 재료로 한 제주방언 연구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 제주방언, 음운, 형태, 문법, 어휘

Ⅰ. 서 론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나,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을 보통 方言이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 곧 국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 말에서 사용 지역에 따라 분화된 말은 方言圈(방언 구획에 의하여 나뉜 각 지역)에 따른 방언 구획에 따라 방언 구역이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뉜다. 그 6개 방언 권역은 중부방언 권역, 서남방언 권역, 동남방언 권역, 서북방언 권역, 동북방언 권역, 제주방언 권역 등이다. 이들 가운데 제주방언 권역은 다른 권역과 비교적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제주방언이 다른 지역 방언과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드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말소리와 어휘의 차이이고, 그 다음으로 드는 것이 문장 구조나 억양, 문법 형태소 등의 차이이다.

말소리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중세국어 '·(ᄋᆞ)'의 후대형이라 할 수 있는 '·(ᄋᆞ)'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ᄉᆞ(ᄋᆞ)'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ᄆᆞᆯ(말/馬), ᄃᆞᆯ(달/月), ᄀᆞᆯ다/ᄀᆞᆯ다(말하다/曰), ᄃᆞᆫ다(닫다/走), ᄃᆞᆯ다(달다/甘) 등.
ᄋᆞᄉᆞᆺ(여섯/六), ᄋᆞᆺ세(엿새/六日), ᄋᆞᄃᆞᆸ/ᄋᆞᄃᆞᆸ(여덟/八), ᄆᆞᆷ다(여물다), ᄋᆞ망지다(여물다) 등.

어휘가 독특하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는 이형태보다 더 다양한 이형태가 쓰일 뿐만 아니라, 특이한 형태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공통어/표준어), 아부지(제주, 전남), 아바지(제주, 평안, 함경, 황해), 아바이(경북, 평안), 아방(제주)
어머니(공통어/표준어), 어무니(제주, 전남, 경상), 어마니(옛말), 어무이(경상, 전라), 어마이(경상, 평안, 함경), 어멍(제주)
오롬·오름/메·미(岳/峰/山)

곳·곳디·고지(숲/수풀/藪)
ᄀᆞᆺ·ᄀᆞᆺ디(가/邊) // 갯ᄀᆞᆺ·갯ᄀᆞᆺ디(갯가/물가/浦邊)

표준어나 다른 지역 방언에서 쓰이는 '나(말하는 이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는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으면 '내'가 된다. 그리고 이의 낮춤말 '저'(말하는 이가 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도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으면 '제'가 된다.

그런데 제주방언에서는 '나'에 주격조사 '가'가 붙어도 '내'로 변하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말해진다. 곧 '내가 ᄒᆞ키여/허키여.'가 아니라 '나가 ᄒᆞ키여/허키여.(내가 하겠다.)'로 말해진다. 낮춤말 '저'는 아예 실현되지 않고 평칭어 '나'가 낮춤말을 대신하기도 해서 '나가 ᄒᆞ쿠다/허쿠다.(제가 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해진다.

이러한 독특한 제주방언은 현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옛사람들에게도 관심사였던 모양이다.

Ⅱ. 제주방언에 대한, 옛사람의 관심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권38의 '제주목' 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그 이전의 『東國輿地勝覽』(1485, 1487, 1499)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風俗】……俚語艱澁〖村民俚語艱澁 先高後伍〗…… 【山川】……金寧藪〖……○藪諺作花〗…….[1]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권38, 제주목, 산천>

1) 필자 해석: 【풍속】……사투리는 알아듣기가 어렵다.〖시골 백성들의 사투리는 알아듣기가 어렵다. 앞말은 소리를 높게 내고 뒷말은 소리를 낮게 낸다.〗…… 【산천】……김녕곳〖……○숲을 '곳'이라 한다.〗…….

또한 金淨의 『冲庵先生集』 권4에 들어있는 「濟州風土錄」(1520-1521)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材屋之制深廣幽深 各梗〚채〛不相連屬……土人語音 細高如針剌[2]) 且多不可曉 居之既久自能通之 古云兒童解蠻語者此也……又山峯之頂 必凹如鑊 陷成泥潦 峯峯皆然 故謂之頭無岳 此尤可恠……猫〚吾兒里〛亦多……山菜蕨〚멸〛蕨最多 而香蔬〚취〛朮人蔘當歸桔梗等皆無……又山果末應〚멍〛……無灰木·鸚鵡螺·椰子〚已上三物隨海 螺·椰子土人不知名 行實陸上岸乃得 地人作行瓢酒器 謂之杏核〛 加時栗·赤栗〚二物 乃橡實之類 但不苦可作粥〛…….[3])

<「濟州風土錄」(1520-1521)>

林悌의 『南溟小乘』(1577-1578)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言語往往雜以文字 若男子之尊稱曰官官 土字蒜字皆不用方言 若不好字用漢音 此類甚多……余之所聞不至於地誌 所謂俚語者但高細不可曉則然矣 以藪爲花岳爲吾老音等語猶前所云[4])

<『南溟小乘』(1577-1578)>

---

2) 剌은 刺의 잘못으로 추정된다.

3) 필자 해석 : ……. 집의 체재는 깊고 넓으면서 깊숙하고 그윽하고, 각 집채〚채〛는 서로 이어져있지 않다.……토박이의 말은 가늘면서도 높게 내어 마치 침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많다. 거기에 산 지 오래되면 저절로 통하게 된다. 옛날에 어린이가 야만인의 말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른 듯하다.……. 또한 산봉우리 꼭대기가 반드시 움푹 팬 것이 가마와 같은데, 움푹 팬 곳은 진창을 이루고 있다. 봉우리마다 그렇기 때문에 '두믜오롬'이라 부르는데, 이것도 더욱 괴이하였다.……. 오소리〚오ᄉᆞ리〛도 많다.…….산나물로, 약모밀〚멸〛과 고사리가 가장 많으나, 참취〚취〛, 삽주, 인삼, 당귀, 도라지 등은 전연 없다.……또한 산과실로 멍〚멍〛이 있다.……흑산호와 앵무소라·야자〚이상 세 물건은 바다에서 나는 것이다. 소라(앵무소라)와 야자는 토박이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다. 그것들은 뭍 위 해안가에서 얻을 수 있다. 토박이들은 소라를 이용해서 길을 떠날 때 술을 담는 기기로 쓰는데, 그것을 행핵이라 한다.〛가시밤·붉은밤〚두 물품은 상수리 종류로, 다만 쓰지 않아서 죽을 쒀 먹을 수 있다.〛…….

金尙憲의 『南槎錄』(1601-1602) 권1과 권2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권1 / ……語音高細如針刺[5]多不可曉 地誌俚語 以藪爲花 以岳吾老音 以爪爲蹄 以口爲勒 勒爲祿大爲加達云……地誌土産……栗〖有赤栗加時栗數種 黃栗則絶無而僅有〗……末應〖已上栗以下 俱在諸山藪中〗.

권2 / ……過一乾川〖名屛門川〗 又渡一溪〖名大川〗……. 地誌 漢拏山在州南二十里 其曰漢拏以雲漢可拏引也 一云頭無岳以其峰峰皆平也 一云豆毛岳以山之連絡者非一而峯頭皆有池 似貯水器也 一云圓山以山形穹窿而圓也……赤栗·加時栗〖兩木皆實如橡栗 味甘不苦 州人拾取藏置 以備救荒〗 橡實……[6]

<이상 『南槎錄』(1601-1602)>

---

4) 필자 해석 : 말을 할 때 왕왕 문자(한자어)를 섞어 말하는데, 남자의 존칭을 '관관'(官官)이라 하거나, 토(土)자와 산(蒜)자는 모두 방언을 쓰지 않는 것(한자어를 쓴다.)과 같다. 좋아하지 않는 자는 한음(漢音)으로 쓰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것은 아주 많다……. 내가 들은 것은 「지지」에 들어 있지 않은데, 사투리가 단지 말소리가 높으면서도 가늘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그런 것이다. 藪(숲)을 '곳'이라 하고, 岳(산악)을 '오롬'이라 하는 등의 말은 앞에 한 바와 같다고 했다.

5) 刺은 剌의 잘못으로 추정된다.

6) 필자 해석 : 권1 / ……. 말을 할 때 높은 소리를 냈다가 가늘어져서 침으로 찌르는 것과 같으니,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많다. 「지지」에, 사투리로 藪(숲)를 '곳'이라 하고, 岳(산악)을 '오롬'이라 하고, 爪(톱)을 '굽'이라 하고 口(입)을 '굴레'라 하고 勒(굴에>굴레)를 '녹데'라 하고, '가달'이라 한다고 하였다.…….「지지」에 토산물……밤〖붉은밤과 가시밤 등 여러 종이 있다. 황밤은 거의 없으나 근근이 있기도 하다.〗……. 멍〖이상 밤 이하는 모두 여러 산 숲 안에 있다.〗

권2 / ……. 하나의 건천〖이름은 병문내이다.〗을 지나고, 또 하나의 내〖이름은 한내이다〗를 지났다.……. 「지지」에, 한라산은 제주 남쪽 20리에 있다. 그것을 한라라 한 것은 은하수(또는 구름)를 잡아당겨 끌만하기 때문이다. 한편 '뒤믜오롬'이라고도 하는데, 봉우리마다 모두 평평하기 때문이다. 한편 '두믜오롬'이라고도 하는데, 산이 이어진 것인 하나가 아니고, 봉우리 꼭대기에 모두 못이 있어서 물을 저장하는 기기와 같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둠메'라고도 하는데, 한 형체가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이면서 둥글기 때문이다.……붉은밤·가시밤〖두 나무는 모두 열매가 상수리와 같으나, 맛이 달고 쓰지 않아서 제주 사람들은 주어서 저장해뒀다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비축해놓는다〗, 상수리…….

李元鎭의 『耽羅志』(1653)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風俗】……俚語艱澁[村民俚語艱澁 先高後低 金淨風土錄 土人語音 細高如針刺[7] 且多不可曉 州記語多殊音 以京爲西那 以藪爲高之 以岳爲兀音 謂爪爲蹄 謂口爲勒草羈 謂之祿大 鐵銜謂之加達 其語音類如此]……

【土産】……赤栗 可是栗 菩提栗【有兩種 一種大如蓮子 秋結實 經冬至 春而熟 俗傳治泄痢】……黏木【皮似厚朴 擣爲末水洗去滓 取汁着物 則鳥鼠虫蛇之類 黏合如膠不能解脫】……[8] <『耽羅志』(1653) 풍속>

이상 조선시대의 제주 관련 고문헌을 보면, 당시 제주방언이 다른 지역 말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언급한 내용이 많다. 더욱이 일부 어휘는 제주도 이외의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쓰는 어휘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고유어로서 제주도에서만 쓰이는 것도 있고, 몽골어에서 들어온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쓰지 않은 것들도 있다. 가령 '숲ㆍ수풀 [藪] '을 '곶>곳 [花] '이나 '고지 [高之] '라 한 것, '악(岳)'을 '오롬 [吾老音ㆍ兀音] 이라 한 것', '톱 [爪/손톱, 발톱] '을

7) 刺은 刺의 잘못으로 추정된다.

8) 필자 해석 : 【풍속】 ……. 사투리는 알아듣기가 어렵다. 〖시골 백성들의 말은 알아듣기가 어렵다. 말을 할 때 앞말은 소리를 높게 하고 뒷말은 소리를 낮게 한다. 김정(金淨)의 「풍토록(風土錄)」에, 토박이의 말은 가늘면서도 높아서 침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 「주기(州記)」에, 말을 할 때 유다른 말소리가 있는데, 京(서울)을 셔나(西那)라 하고, 藪(숲)을 고지(高之)라 하고, 岳(산악)을 '오롬(兀音)'이라 하고, 爪(톱)을 굽(蹄)이라 하고, 口(입)을 굴레(勒)라 하고, 草羈(풀로 만든 굴레)를 '녹데(祿大)'라 하고, 鐵銜(쇠로 만든 재갈)을 '가달(加達)'이라 하였다. 그 말소리류가 이와 같다.〗 …….
【토산】 …….. 붉은밤, 가시밤, 보리밤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크기가 연밥만하다. 가을에 열매가 맺어서 겨울이 지날 때까지도 남아 있다가 봄이 되면 익는다. 민간에서 설사를 치료하는 데 쓴다.】 …….. 참나무(츠남) 【껍질은 후박과 같아서, 두드려서 끝을 물로 씻고 찌기를 없앤 뒤에 즙을 취해서 물건에 붙이면, 새와 쥐, 충과 뱀 따위가 차지게 붙는 것이 아교와 같아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

‘굽’(발굽)이나 ‘콥ㆍ쿱 [蹄/손콥ㆍ손쿱, 발콥ㆍ발쿱] ’이라 한 것 등은 모두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령 현대국어 ‘톱’(손톱과 발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은 중세국어에서도 ‘손톱’이나 ‘솑톱’, ‘밠톱’ 등과 같이 실현되었다. 다만 ‘말, 소, 양 따위 짐승의 발끝에 있는, 두껍고 단단한 발톱’을 옛말에서부터 ‘굽’이라 했는데, 당시 제주방언에서는 사람의 ‘손톱’이나 ‘발톱’도 동물의 것을 일컫는 것과 같이 ‘손쿱, 발쿱’이라 했다는 것이다. 현대 제주방언에서는 ‘손콥’과 ‘손쿱’, ‘발콥’과 ‘발쿱’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도 ‘톱’의 변음으로 ‘콥’이 실현되고, 나아가 ‘쿱’으로까지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문헌에 기록을 남긴 사람은 그것을 동물의 발굽을 이르는 ‘굽’으로 인식해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Ⅲ. 제주방언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과 조사, 연구 동향

1. 제주방언에 대한 관심과 연구

현대인이 제주방언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초반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倂呑된 뒤에, 일본 학자들이 제주방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논문도 썼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9]와 그의 제자인 고노 로쿠로(河野六郎)[10] 등이 있다.

9) 일본의 언어학자이자 한국어 학자(1882~1944). 경성 대학교와 도쿄 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鄕歌와 吏讀는 물론 우리나라 方言 등을 연구하였다. 저서에『增訂 朝鮮語學史』,『朝鮮語 方言의 硏究』따위가 있다.

10) 일본의 언어학자이자 한국어 학자(1912~1998). 효고현 고베시(兵庫縣 神戶市)에서 출생.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과 조교수를 거쳐 동경대학

小倉進平(1913a), “濟州島方言”,『朝鮮及滿洲』68호(大正二年 三月), 朝鮮及滿洲社.
小倉進平(1913b), “濟州島方言(接前)”,『朝鮮及滿洲』69호(大正二年 四月), 朝鮮及滿洲社.
小倉進平(1913c), “濟州島方言(接前)”,『朝鮮及滿洲』70호(大正二年 五月), 朝鮮及滿洲社.
小倉進平(1920),『朝鮮語學史』, 大阪屋號書店.
小倉進平(1921), “16. 濟州島の方言き傳說”,『國語及朝鮮語のため』, ウシボや書籍店.
小倉進平(1924), “朝鮮語の歷史的研究上より見たる濟州島方言の價値(조선어의 역사적 연구 위에서 본 제주도방언의 가치)”,『朝鮮』1924년 2월호(제106호).[11]
小倉進平(1924),『南部朝鮮の方言』, 朝鮮史學會.
小倉進平(1931), “濟州島方言”,『靑丘學叢』5호, 靑丘學會.[12]

그리고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 학자들도 제주방언에 관심을 가졌으나, 그 연구 결과는 미미하였다. 광복 후에 이숭녕, 김완진, 이기문, 이남덕 등이 제주방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김완진(1957), “濟州道 方言의 日本語語詞 借用에 對하여”,『국어국문학』18집, 국어국문학회.
이숭녕(1957),『濟州島 方言의 形態論的 硏究』,『동방학지』3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1978년에 단행본으로 발간)
이기문(1977), “제주도방언의 ‘ㆍ’에 관련된 몇 문제”,『이숭녕선생 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조교수, 동경교육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우리나라 말의 역사와 계통에 관심을 두고 방언을 연구하고, 한국 한자음 및 성조에도 관심을 보였다.

11) 이 논문은『朝鮮』1924년 2월호(제106호)에 실린 뒤, 그의『南部朝鮮の方言』(1924년 3월, 朝鮮史學會)에도 실렸다.

12) 이 논문은『靑丘學叢』5호(1931)에 처음 실린 뒤에, 그의『朝鮮語方言の硏究 下卷』(1944)에도 실렸다.

이기문(1980), “가파도 방언의 특징”, 『연암현평효박사회갑기념논총』, 동서간행위원회.
이기문(1985), “祿大와 加達에 대하여”, 『국어학』 14호, 국어학회.
이기문(1993), “濟州方言과 國語史 硏究”, 『탐라문화』 13호, 탐라문화연구소.
이기문(1982), “제주방언의 동사종결어미변화에 나타난 시상체계에 대하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0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일제강점기 후반에 나비학자 석주명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방언 수집을 하여 책으로 간행했는데, 국어학적 또는 언어학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1950년대부터 제주 출신의 국어학자 또는 언어학자들이 제주방언 수집과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현평효, 김영돈, 현용준, 박용후, 강근보, 홍종림, 고재환, 김공칠, 강영봉, 강정희, 성낙수, 송상조, 고영진, 고동호, 정승철, 오창명, 문숙영, 김순자, 김미진, 김보향(이상은 잠정적인 나이순임. 아래 연구 업적도 이 순서에 따름.) 등 일련의 학자들이 제주방언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玄平孝(1956), “方言硏究法”, 『國文學報』 권1,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玄平孝(1964), “濟州島方言 ‘ㅐ’ 音에 對하여”, 『國文學報』 권2,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玄平孝(1964), “濟州道方言의 單母音設定”, 『한국언어문학』 2, 한국언어문학회.
玄平孝(1974),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玄平孝(1976),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 硏究』, 亞細亞文化社.
玄平孝(1985), 『濟州島方言硏究: 論攷篇』, 二友出版社.

金榮敦(1956), “제주 방언의 어미 활용(1)”, 『한글』 119권, 한글학회.
金榮敦(1957), “제주 방언의 어미 활용(2)”, 『한글』 121권, 한글학회.
金榮敦(1957), “제주 방언의 어미 활용(3. 완)”, 『한글』 122권, 한글학회.
金榮敦(1965), 『濟州島 民謠硏究 上』, 일조각.
金榮敦(1989), “濟州海女集團의 特殊語彙硏究에 따른 文獻 및 그 課題”, 『濟州島硏究』 권6, 제주도연구회.

金榮墩(1993),『제주의 민요』, 민속원.
金榮墩(1994), "민요 요사 속에 담긴 유별난 제주 방언",『동악어문학』권 29, 동국대학교 동악어문학회.

朴用厚(1960),『제주방언연구』, 동원사.
朴用厚(1988),『濟州方言硏究: 考察篇』, 과학사.
朴用厚(1992),『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姜根保(1972), "濟州島方言 「잇다」 活用考",『논문집』권4, 제주대학.
姜根保(1972), "濟州島 方言 語彙考(一)",『國文學報』권4,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
姜根保·玄平孝·金洪植(1974), "濟州島 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硏究",『논문집』6권, 제주대학.
姜根保(1975), "濟州島方言 語彙(二): 屈曲에서의 [-마씀]을 중심으로",『國文學報』7권,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
姜根保(1976), "屬格 {-ne}의 硏究: 濟州島方言의 {-ne}를 中心으로",『논문집』8권, 제주대학.
姜根保(1977), "濟州島方言의 接尾辭 硏究: 特히 {-true}를 中心으로",『논문집』9권, 제주대학.
姜根保(1978),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대하여",『논문집』10권 1호, 제주대학.

洪宗林(1975),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에 대한 고찰 : 서론",『韓國國語敎育硏究會 論文集』, 8권,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洪宗林(1976), "제주도방언의 선어말어미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 에 대하여",『先淸語文』7권 1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洪宗林(1981), "제주도방언의 선어말어미 '-크-'에 대하여",『先淸語文』11권 1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洪宗林(1983), "제주도방언의 소위 회상법형태에 대하여",『국어교육』44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洪宗林(1984), "濟州島 方言의 先語末語尾 '-느-'에 대한 試考",『論文集』21권, 淸州敎育大學校.
洪宗林(1987), "濟州方言의 아스펙트 形態에 대하여",『국어국문학』98권, 국어국문학회.

洪宗林(1993),『제주도 방언의 樣態과 相』, 翰信文化社.
洪宗林(1994), "제주방언의 평서법어미에 대한 고찰(1)",『先淸語文』22권 1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洪宗林(1998), "제주방언의 'ㅎ'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탐라문화』19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洪宗林(1999), "현대국어의 의문법 체계 고찰(1): 제주방언을 중심으로",『論文集』36권, 淸州敎育大學校.
洪宗林(2001), "제주방언 연결어미의 '-n', '-ŋ'에 대하여",『국어학』38권, 국어학회.

김공칠(1981),『방언학』, 학문사.
김공칠(2011),『제주방언통사론 : 비교통사론』, 백산출판.
김공칠(2014),『고대 제주도의 언어와 역사 : 일본 등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재구』, 백산출판.
김공칠(1999),『耽羅語 硏究 : 濟州方言의 源流』, 한국문화사.

고재환(1986), "濟州島 俗談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재환(1993),『濟州島 俗談 硏究』, 집문당.
고재환(1999),『濟州島俗談辭典』, 제주도.
고재환(2000),『濟州俗談總論』, 민속원.
고재환(2002, 2013),『濟州俗談辭典』, 민속원.
고재환(2011),『제주어개론: 상』, 보고사.
고재환(2011),『제주어개론: 하』, 보고사.
고재환(2017),『제주어 나들이』, 보고사.

강영봉(1986), "제주도 방언의 식물이름 연구",『탐라문화』5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강영봉(1986), "濟州島方言의 魚名 硏究",『논문집』, 16권 1호, 제주대학교.
강영봉(1995), "제주도방언의 어휘론적 연구",『탐라문화』15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강영봉(1999),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의 비교 연구",『탐라문화』20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강영봉(2001),『제주의 언어 1』, 도서출판 제주문화.
강영봉(2001),『제주의 언어 2』, 도서출판 제주문화.

강영봉(2007),『제주의 민속문화 1: 제주어』,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강영봉 · 김동윤 · 김순자(2010),『문학 속의 제주방언』, 글누림.
강영봉(2017),『말하는 제주어』, 한그루.

강정희(1988),『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강정희(1976), “제주방언의 동사류 접미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정희(1984), “제주방언의 명사류 접미사에 관한 연구 : 격 표시와 명사구 확정 접미사의 통사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정희(1987),『제주방언의 접속어미와 동작상어미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국어학회.
강정희(2005),『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성낙수(1984),『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 정음사.
성낙수(1991), “제주도 방언지도 시안”,『한국어문교육』2집,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성낙수(1992),『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송상조(1982), “'ㅎ'介入에 관한 考察 : 濟州 方言을 中心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상조(1991),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상조(2011),『제주말에서 때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 한국문화사.

김지홍(1982), “濟州方言의 動詞的 補文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홍(2011),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가지 문제”, 백록어문학회.
김지홍(2015),『제주 방언의 통사 기술과 설명 : 기본구문의 기능범주 분석』, 경진출판.
김지홍(2016), “제주 방언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 체계”,『한글』313호, 한글학회.

고영진(1984), “제주방언의 인용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영진(2002), “제주도 방언의 상대높임법의 형태론”,『한글』256호(2002년

여름), 한글학회.
고영진(2003),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의 형태론 : 이른바 'ᄒᆞ라체'를 중심으로”, 『한글』 262호, 한글학회.
고영진(2007),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하여”, 『한글』 275호, 한글학회.
고영진(200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의 체계화를 위하여”, 『한글』 280호, 한글학회.

현우종(1985), “제주도방언 ‘ㆍ’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현우종(1992), “제주방언 홀소리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동호(1991),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와 이중모음의 변화”, 『언어학』 13호(1991년 4월), 한국언어학회.
고동호(1995), “국어 마찰음의 통시적 연구 : 제주도 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동호(1995), “제주 방언의 움라우트 연구: 형태소 내부를 중심으로”, 『언어학』 17호(1995년 12월), 한국언어학회.
고동호(1996), “제주 방언의 유기음과 경음의 형성 과정”, 『한글』 234호(1996년 겨울), 한글학회.
고동호(1997), “제주 방언의 모음조화 연구”, 『언어학』 21호(1997년 12월), 한국언어학회.
고동호(2008), “제주 방언 ‘ㆍ’의 세대별 변화 양상”, 『한국언어문학』 63호, 한국언어문학회.

문순덕(2000),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 연구』, 세림.
문순덕(2003), 『제주여성의 일생의례와 언어』, 인터북스.
문순덕(2012), 『제주 여성 속담의 미학』, 민속원.
문순덕(2014), 『제주방언의 그 맛과 멋』, 보고사.

정승철(1988), “濟州島方言의 母音體系와 그에 관련된 音韻現象”,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승철(1995),『濟州道 方言의 通時音韻論』.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파생접미사 : 몇 개의 재구형을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30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정승철(1997),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 인용어미를 중심으로”,『애산학보』20호, 애산학회.

오창명(1998),『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7),『제주도 오롬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7),『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Ⅰ』,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7),『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Ⅱ』, 제주대학교출판부.

우창현(1994), “濟州 方言의 敬語法에 對한 硏究”,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창현(1995), “제주방언의 시상선어말어미에 대하여”,『서강어문』11집, 서강어문학회.
우창현(1998), “제주방언의 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숙영(1998), “제주도 방언의 시상 형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숙영(2004), “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형태소에 대하여”,『형태론』6권 2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숙영(2006), “제주방언의 ‘-엄시-’의 범주와 관련된 몇 문제”,『형태론』8권 2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순자(2005), “濟州學 定立을 위한 基本 用語 硏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순자(2006),『와치와 바치 : 제주의 삶과 문화를 잇는 사람들』, 각.
김순자(2011),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순자(2014), “제주도방언의 어휘 연구”, 박이정.

김미진(1998), “제주도방언의 ‘ᄒᆞ다’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진(2015),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보향(2015), “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와 언어 전환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제주방언 조사와 자료화

제주방언에 대한 초창기 조사와 수집, 간행 등은 일본 학자들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는 1911년(明治 44년)과 1930년에 제주도에 와서 제주 방언과 지명 일부를 조사하여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개의 논문도 쓰고, 자료집도 만들었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일부는 그의 논문에서 이용되고, 일부는 다음과 같은 자료집에 수록하기도 했다.

小倉進平(1924),『南部朝鮮の方言』, 朝鮮史學會.
小倉進平(1944),『朝鮮語方言の硏究 上卷』, 岩波書店.
小倉進平(1944),『朝鮮語方言の硏究 下卷』, 岩波書店.

나비 학자인 석주명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만 2년여를, 서귀포 토평에 있었던 京城帝國大學 附屬 生藥硏究所 濟州島試驗場에 근무했는데, 이때 제주방언을 틈틈이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1947년 6월에 탈고하여『濟州島方言集』으로 발간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원고들을 정리한 자료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국어학적 또는 언어학적 자료로 이용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石宙明(1947),『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출판부.
石宙明(1968),『濟州道 隨筆: 濟州島의 自然과 人文』, 寶晋齋.

일본 학자들 다음으로 국어를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박용후, 현평효, 송상조 등이 제주방언을 조사하여 수집하고, 그 결과를 사전으로 간행하였다.

박용후(1960),『제주방언연구』, 동원사.
박용후(1988),『濟州方言硏究: 資料篇』,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玄平孝(1962),『濟州島方言硏究: 第1輯 資料篇』, 精硏社.

玄平孝(1985),『濟州島方言硏究: 資料篇』, 태학사.
韓國精神文化硏究院 語文硏究室 編(1995).『韓國方言資料集 9: 濟州道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제주도(1995),『제주어사전』.
송상조(2007),『제주말큰사전』, 한국문화사.
제주특별자치도(2009),『개정·증보 제주어사전』.
현평효·강영봉(2011),『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도서출판 각.
현평효·강영봉(2014),『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 도서출판 각.

한편 2000년대 들어 국립국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지원으로, 제주의 여러 지역어를 조사하여 채록한 보고서들이 나와서, 제주방언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강영봉(2007),『제주 한경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강영봉(2008),『2008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강영봉(2008),『제주 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강영봉(2010),『2010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어휘·음운·문법』, 국립국어원.
강영봉(2011),『제주 표선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강영봉(2012),『2012년도 제주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강영봉(2013),『2013년도 제주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강영봉(2016),『제주 가파도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
강영봉(2016),『제주 구좌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
강영봉(2016),『제주 서귀 색달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1』.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5』.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6』.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7』.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9』.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1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11』.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1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1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1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15』.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16』.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17』.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1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19』.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2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21』.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2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2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2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25』.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26』.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27』.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2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29』.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3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31』.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3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3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3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35』.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5),『(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 보고서 36』.

국립국어원(2009),『제주 서귀 호근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국립국어원(2011),『2011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어휘·음운·문법』, 국립국어원.

이외에 제주방언을 수집한 조사보고서로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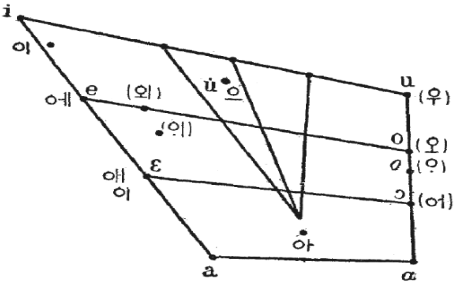
강영봉 · 김동윤 · 김순자(2010),『문학 속의 제주방언』, 글누림출판사.
김미진(2009),『제주시 용강동 권상수 할아버지 생애 구술(각신 이끄곡 서방은 갈곡)』,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김순자(2008),『제주시 이호마을 고순여 할머니 생애 구술(나, 육십육 년 물질 허멍 이제도록 살안)』,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김순자(2009),『해녀·어부·민속주 : 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출판사.
김순자(2014),『제주수산물 방언자료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돈·현용준·현길언(1985),『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74),『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篇』.

제주 4 · 3연구소(2015),『옛날 살아온 말 곧젠 허민 기가 멕히지 : 서귀면·중문면』, 제주4·3평화재단.
제주 4 · 3연구소(2015),『죄인 아닌 죄인으로 수십 년을 살안 : 남원면·표선면』,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도(1993),『제주의 민속 Ⅰ: 세시풍속·통과의례·전승연희』.
제주도(1993),『제주의 민속 Ⅲ: 생업기술·공예기술』.
제주도(1994),『제주의 민속 Ⅱ: 생업기술·공예기술』.
제주도(1996),『제주의 민속 Ⅳ: 의생활·식생활·주생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2015),『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Ⅰ: 애월읍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2015),『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Ⅱ" 조천읍편』.
진성기(1967).『남국의 전설』, 제주민속문화연구소.
진성기(1968),『남국의 무가: 제주도무가전집』, 제주민속문화연구소.
진성기(1991),『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1),『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3),『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현용준(1980),『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3. 제주방언 연구 동향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말소리 [音韻] , 어휘와 형태, 문법 등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이루어기도 했다.

제주방언의 말소리나 음운에 대한 연구는 오구라신뻬이(1913)을 시작으로 하여 (1924, 1931)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주방언의 단모음 체계도를 완성하였다.



현평효는 그의 논문(1963, 1964, 1970, 1971, 1982) 등을 거쳐서, 제주도방언은 다음과 같은 단모음체계를 이룬다고 밝혔다.

c 母音體系			k 母音體系			s 母音體系			s 母音體系		
i_1	$ɯ_1$	u_1	i_1	$ɯ_1$	u_1	i_1	$ɯ_1$	u_1	i_1	$ɯ_1$	u_1
e_2	$ə_2$	o_2	e_2	$ə_2$	o_2	e_2	$ə_2$	o_2	$E_{2,3}$	$ə_2$	o_2
↑			↑			↓					↑
$ɛ_3$	a_3	$ɒ_3$	$ɛ_3$	a_3	$ɒ_3$	E_3	a_3	$ɒ_3$			a_3←$ɒ_3$
i	ɯ	u	ㅣ	ㅡ	ㅜ	ɪ	ɯ	u	ㅣ	ㅡ	ㅜ
e	ə	o	ㅖ	ㅓ	ㅗ	E	ə	o	ㅖ	ㅓ	ㅗ
ɛ	a	ɒ	ㅐ	ㅏ	·		a			ㅏ	

한편 이숭녕(1957)[13]에서는, 제주도방언의 'ᄋᆞ'음은 오직 제1음에

13) 이 글은 이숭녕이 1951년 제주도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ᄋᆞ'가 제1음절에서만 유지되고, 제2음절에서는 '으'나 '우', 또는 기타 모음으로 발달한 것(예외적으로 아들 등 극소수가 있음), 한

서만 유지되고, '아들'(子)과 같이 극히 일부의 단어에서 제2음절에서도 'ᄋᆞ'가 실현되지만, 대부분 'ᄋᆞ>으(또는 우)'로 발달되고, 이로 인해 제1음절의 'ᄋᆞ'음마저 동요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숭녕(1957)은 당시 10개의 단모음이 있다고 9개의 단모음에 '위'[y]를 포함한 10개 단모음이 있다고 한 뒤에, '애'는 [E] 또는 [e]로 갈려 인식되나, 연소층은 오직[e]로 발음된다고 했다. 그리고 '외'도[ø]로 발음되지 못하고[we], [ue]로 발음된다고 했다. '위'도 [y]또는 [i]로 이행 중이나, 연로층은[wi]로 발음하는데, 자음이 후행하면[y]보다 [i]로 발음된다고 했다. '의'는[i]로 발음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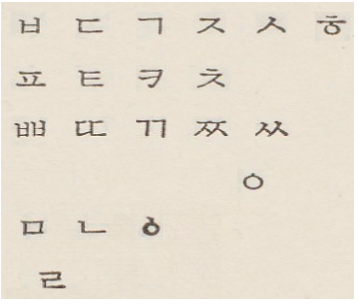
[a] 아	[o] 오	[ω] ᄋᆞ
[ɵ] 어	[u] 우	[ɯ] 으
[i] 이		
[e] 에	[E] 애	[y] 위

이숭녕(1957)과 박용후(1960), 현평효(1962) 등에서 제주방언의 이중모음에서 'ᄋᆞ' [jω/jɑ] 가 실현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중모음 'ᅨ'와 'ㅚ', 'ㅟ'와 'ㅣ' 표기상 혼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현평효(1962)에서는 '소'(牛)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을 '쉐'와 '소'로 등재했는데, 박용후(1960)에서는 '쇠'로 표기했다. 또한 현평효(1982)에서 이중모음 'ㅟ'는 'ㅣ'로 발음되어 진다고 했다.

제주도방언의 자음체계는 표준어와 같은 19개 자음에서 유성후두음 'ㅇ' [ɦ] 을 추가한 20개가 현평효(1971, 1982)에 의해 제시되었다.

자음에서도 'ᄋᆞ'가 당연히 유지된 것, 중세국어나 육지부에서 'ᄋᆞ'음이 아닌 것이 제주방언에서 확인되는 것(過誤의 發達일 듯) 등 'ᄋᆞ'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주방언의 형태와 문법에 대한 연구는 오구라신뻬이(1931), 이숭녕(1957), 현평효(1974), 이남덕(1980), 강정희(1984), 홍종림(1993), 정승철(1997, 1998), 송상조(2011), 김지홍(2014, 2016) 등으로 이루어졌다.

오구라신뻬이(1931)에서는 의문 또는 응답에 쓰이는 종결어미 '-수과, -수다, -수게, -서, -신가' 등의 앞에 실현되는 '-암/엄-'은 현재, '-앗/엇-', '-안/언-'은 과거를 나타낸다고 했다. 또한 '-ᄅᆞ쿠가, -ᄅᆞ켄가'는 미래 의문을, '-ᄅᆞ쿠다, -키여'는 미래 응답을 나타낸다고 했다. '-우다, -수다, -우과, -수가'는 연상장에 대한 응답 또는 의문을 나타내고, '-미니, -ㅁ가'는 연하자에게 의문을 나타내고, '-ㅂ서, -ㅂ소서'는 연상자에 대한 희구를 나타낸다고 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여러 종류의 선어말어미를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숭녕(1957)에서는 제주방언의 어간 형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특기하였다. 명사의 어간 말음에 '-i'를 첨가하여 실현되는 것(조카→코캐→조케), 명사어간 말음 '-우, -우'가 '-이'로 실현되는 것(고추→고치), 명사어간 말음 '-ᄋᆞ'가 '-i'로 실현되는 것(노ᄅᆞ→노리), 명사어간 말음 '-ᄅᆞ'이던 것이 '-를, -루'로 실현되는 것(ᄀᆞᄅᆞ→ᄀᆞ루, ᄀᆞ를), 명사어간 말음에 '-ŋi'를 덧붙여 실현되는 것(ᄀᆞᆯ게→ᄀᆞᆯ겡이), 명사어간 말음에 '-gi' 또는 '-ŋgi'를 붙여서 실현되는 것(구제기/구젱기), 명사어간 말음에 '-an, -aŋ, -ŋ'이 붙어서 실현되는 것(곳/

場所→고단, 곶/花→고장, 압/父→아방, 엄/母→어멍).

한편 제주방언의 동사 활용에서 어간에 시제를 나타내는 'ㅁ(현재)-ㄴ(과거)-ㄹ(미래) / ㅁ(현재)-ㅅ(과거) / ŋ(미래)-ㄴ(과거)' 등이 대립적으로 붙고, 그 뒤에 어말어미가 붙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외에도 의지 미래의 'ㅋ', 연결어미의 '-ㅇ(ŋ: 미래적 행동의 선행), -ㄴ(과거적 행동의 선행)', '마씀'(ㅎ염쩬마씀), '낫쩌'(ㅎ여낫쩌), '보다(헤보다)', '-주'(제약: ㅎ주)' '-바(<보아)-'(헤밤디아?) 등과 같이 특이한 어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현평효(1974)에서는 제주방언의 선어말어미로 표시되는 동작상(시상)과 존대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엄-'은 '동작의 지속'을 뜻하는 '미완료상'(지속상), '-엇-'과 '-언-'은 '동작의 완료'를 뜻하는 '완료상', '-엄시-'와 '-엄ㅅ-'은 '동작의 미완료 상태가 지속하여 나감'을 뜻하는 '미완료존속상', '-엇ㅅ-'과 '-어시-'는 '동작의 완료상태가 지속하여 나감'을 뜻하는 '완료지속상' 등을 나타낸다고 했다. 한편 대자존대법으로, 연장자와 상위자에게는 '-우-', '-ㅂ-' 등으로 선택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남덕(1982)은 제주방언의 동사 활용의 형태 구조를 분석하여, 어간과 어미 사이에 사역·피동태, 상대존대, 시상과 서법의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런 뒤에 제주방언의 시상체계 전반을 밝혔다. 시상을 나타내는 부분은 b의 Aspect(동작상)와 c의 Mood(서법) 부분으로, b부분은 'ㅎ야이시-' 형에 완료와 미완료의 형태소가 결합된 구조로, c부분만의 활용 형태를 가진 것을 단순구조로 본다면, '-아시-/-어시-'를 가진 부분(곧 b부분을 가진) 활용 형태는 어간을 이중으로 가진 구조이므로 복합구조라 했다.

고영진(2008)에서는 제주방언의 상을 다루면서 시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상 관련 용어로 사건의 진행에서 '시작-전개-종료'를 아우르는 '완전상'('-느-'에 의해서 표현), 장

면의 전개과정을 나타내는 '불완전상'('-암시-'에 의해서 표현), 특정한 기준 시점에서 그보다 전에 실현된 운동이 계속 관여하여 효력을 가지는 '완료상'('-아시-'에 의해 표현) 등을 논의하였다.

강정희(1976)은 제주방언의 동사류 접미사(종지법의 굴절접미사)를 논의한 것이고, 강정희(1984)는 제주방언의 명사류 접미사(격표시와 명사구 확정접미사)의 통사의미 기능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전자는 제주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배합되는 굴절 접미사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검토한 것이고, 후자는 제주방언의 명사류 표현에 대해서, 격표시 접미사를 중심으로 그 통사와 의미 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홍종림(1993)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인 홍종림(1991)으로, 역시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범주를 연구한 것이다. 여기서 초맥락적 정보를 나타내는 양태요소로인 '-을 거'(蓋然的 판단 의미)와 '-으크(實然化의 확신 의미)', '-느-/-ㄴ-/-네-'(實然性 의미), 맥락적 정보를 나타내는 양태요소 '-더-'(話者의 수용적 의식의 回想 의미)와 '-과-'(화자의 적극적 의식의 回想 의미). '-노/-누-'(적극적 의식과 동시에 발화되는 상황 의미)로 나누어 논의했다. 또한 實演相의 '-암/엄-, -암시/엄시-'(동사어간 자체의 의미가 실연되는 상황)와 結果相의 '-안-/언-, -아시/어시-'(동사어간의 의미가 실연됨으로써 야기되는 결과적 상황)을 논의하였다.

정승철(1997)은 제주도방언의 인용어미에 대한 형태음소론적인 특징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특히 제주방언의 피인용문 종결어미와 인용어미 '엔'의 결합형에서 독특한 교체를 보여주는 것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직접인용문의 형성은 대개 인용어미 '엔'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종결어미에 따라 '엔'의 결합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정승철(1998)에서는 제주방언의 상대경어법이 흡서체(존대), ᄒᆞ여체(평대), ᄒᆞ라체(하대)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상조(2011)은 그의 일련의 논문(1992, 1993, 1994) 등으로 바

탕으로 한, 제주말에서 때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을 논의한 것이다.

김지홍(2014)와 (2016)은 제주방언 기본 구문의 기능범주, 곧 조사 부류, 용언의 활용어미의 서술서법, 의문서법, 감탄서술 서법 등의 어미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 그리고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의 틀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를 진행했다.

제주방언 어휘의 특징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해왔다. 일찍이 제주방언의 일본어는 김완진의 논저에서, 민요 가사에 나타나는 어휘, 그리고 즘녜 관련 어휘는 김영돈의 여러 논저에서, 무가 본풀이 관련 어휘는 현용준의 여러 논저에서, 고문헌의 일부 차자 표기 어휘에 대해서는 이기문의 여러 논저에서, 특수 어휘에 대해서는 강금보와 김홍식의 여러 논저에서, 일부의 동물명과 식물명은 강영봉의 여러 논저에서, 제주지명에 나타나는 어휘는 오창명의 여러 논저에서 논의되었다.

Ⅳ. 제주방언 조사와 표기, 연구 과제

1. 제주방언 조사

제주방언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고로층이 썼던 제주방언이 소멸, 또는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표준어와 외래어의 범람으로 인해 제주방언과 이들 방언의 섞이는 현상이 많아졌고, 엉뚱한(?) 제주방언(맛언[마던] 맛인[마신], 인, 언, 필요인, 필요언 등)도 재생산되고 있어서 본디 제주방언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

그러므로 말소리와 발음 차원의 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어휘 차원의 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야기 차원의 조사

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뒤에 위와 같은 신어성의 제주방언의 쓰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2. 제주방언의 자료화, 사전화, 정보화

조사된 제주방언을 자료화하고 사전화하는 작업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각의 것을 신뢰하거나 신빙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더라도 현재 이루어진 것만이라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보를 오픈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자료와 사전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오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종이 자료든 인터넷 자료든 약속된 글자를 가지고 글을 쓸 때는 주의해야 한다.

	매[鷹]	바[繩] 베[布]	배[舟] 배(梨)	호미[鋤]	냉이[薺]	오름[岳]
小倉進平 (1944)	매/믜	베	빅/베 빅/베	골겡이	난시/난젱이	오롬(orom)
박용후(1960)	매(춤매)	베/마폐 배/짐패	베 베	골개/골갱이	난지/ 난생이/ 난쟁이	오롬(olom)
현평효(1962)	매	배	베 베	골갱이/골각 지/골개기	난생이/난젱 이/난지/난상 이/나시	오롬(orom)
한국정신문화 연구원(1995)	매(mɛ)	베	베	골게기/골게 /골겡이	난시/난생이/ 난젱이	-

가령 ‘애’로 써야 할 것인지, ‘에’로 써야 할 것인지, ‘의’로 써야 할 것인지, ‘이’로 써야 할 것인지, ‘외’로 써야 할 것인지, ‘왜’나 ‘웨’로 써야 할 것인지 등 음성과 음운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이들을 쓸 때 그 글자 배정에 신중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가령 현평효(1962)에서는 글자로 쓸 때 '의'를 살려서 '흔듸'로 썼는데, 박용후(1960, 1988)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흔디'로 썼다. 이러한 표기의 혼란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이숭녕(1957)에서 제주방언에서 '의'는 '이'로만 소리 난다고 했다. 그렇다면 글자로는 '의'를 인정하고, 소리로는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제주방언의 음운들은 어떻게 실현되고, 각 음운에 대응하는 글자는 어떻게 배당해서 쓸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한다.

말소리와 발음 차원의 정보화, 단어나 어휘 차원의 정보화, 문장과 이야기 차원의 정보화 등이 차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직업 또는 분야 차원에서도 나뉘어 이루어져야 한다.

3. 제주방언 연구와 체계화

이제는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를 정밀화할 때가 되었다. 6,70여 년 전부터 제주방언의 '·(ᄋᆞ)'는 제대로 발음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ㅡ(ᄋᆞ)'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지금도 '·(ᄋᆞ, 아니면 오/어?)'로 적어야 할 정도로 제대로 발음되고 있는지, 'ᄋᆞ(아니면 여/요?)'로 적어야 할 정도로 제대로 발음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말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제주방언의 말소리 변화, 발음의 변화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글자도 어떤 글자를 배당하여 쓰는 것이 좋을지 논의해야 한다.

더욱이 글자 이름(아래 아?, 이중아래아?)을 가지고 모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곧 '·(ᄋᆞ)'는 '·(ᄋᆞ)'라고 해야 하는데 '아래 아'라고 한다든가, 'ㅡ(ᄋᆞ)'는 'ㅡ(ᄋᆞ)'라고 해야 하는데 '이중아래아(?)'라거나 '겹아래아(?)'라 하는 것 등은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방언 문법에 대한 연구도 정밀화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는 '-암/엄-', 그리고 '-암ㅅ/엄ㅅ-', '-앐/엀-', '-암시/엄시-'에 대한 것이다. 문법적으로 정밀하게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글자로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제주방언에 대한 관심은 조선시대부터 있어왔는데, 대개 독특하거나 특이한 어휘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초반부터 일본인 학자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주방언의 음운과 어휘, 문법 요소 등에 대해 연구를 펼쳤다. 그러나 일본인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제주방언의 특징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펼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학자들도 제주방언에 관심을 가졌는데, 일본인 학자들만큼 연구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심에 그쳤다. 그 가운데 석주명은 비전문가로서 제주방언에 관심을 가져 제주방언을 수집하여 자료집을 냈다. 어휘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언어학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휘적인 면에서도 언어의 기원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석주명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고 있다.

광복 후에는 이숭녕이나 김완진, 이기문 등과 같은 학자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학술조사를 행하여 연구 결과를 남기고, 박용후와 현평효 등이 제주방언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등 업적을 남겼다. 그 뒤를 이어 강근보, 김홍식, 강정희, 강영봉, 송상조, 고영진, 고동호, 정승철,

오창명, 김순자 등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음의 연구 결과, 음운에 대한 것은 '에'와 '애'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정확히 구분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의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ᄋᆡ'와 'ᄋᆞ'의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형태의 연구 결과, 상(aspect)과 관련 있다고 하는 '-암ㅅ/엄ㅅ-'의 표기는 표기법과 관련해서도 혼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방언의 상도 어휘적 상과 문법적 상을 나누고, 문법적 상에서 진행 상황과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동사 어미는 물론 구문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문법적 상과 시제(tense), 양상(modality) 등과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어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미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 문화와 관련하여 대문(바깥대문)이 없다고 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대문(바깥대문)과 관련한 말이 '정낭'이라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정낭'은 '정'의 한 부속품에 불과한데, '정'을 '정낭'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정낭'과 같은 말로 '정슬 · 정살', '정슬낭 · 정살낭' 등도 쓰였는데, 이들을 '정주석'과 '정주목'과 구분하지 못하여 풀이한 사전이 있다든가, 구분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방언학자가 있다든가 하면 심각한 문제이다.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완벽하게 풀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관습적인 의사소통이나 감정 표현의 측면과 아울러 관습적이지 않은 부분도 고려해야 하나다. 그러나 관습적인 의사소통의 측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제주방언의 문장도 제대로 표현되어야 하고 알려져야 한다. 가령 정중하게 맞이하는 뜻으로 쓰는 표준어 '어서 오십시오'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을 'ᄒᆞᆫ저옵서예'라고 하는 한, 제주방언은 제대로 연구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다. 정중하게 맞이하

는 뜻으로 제주방언 ‘흔저옵서예’는 절대로 쓰지 않았다.

제주방언을 제대로 수집하여 기록하여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수집된 제주방언을 재료로 한 제주방언 연구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濟州島硏究』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요강에 따라 참고문헌 목록을 기록해야 하나 본 논문의 특성상 참고문헌 목록이 논문 내용 중에 일목요연하게 나열되고 있는 바 별도의 기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Abstract

Interest in Jeju dialect, Research Trends and Tasks

Oh, Chang-Myeong*

Interest in the Jeju dialect has existed since the Joseon Dynasty, and it has usually paid attention to a unique or unique vocabulary. Then, as Japanese scholars entered Jeju Island from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studied phonology, vocabulary and grammar elements of Jeju dialect.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 of being a Japanese, I could not study in depth the characteristics of Jeju diale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 scholars were interested in the Jeju dialect, but they did not leave as much research achievement as the Japanese scholars, and they were superficially interested. Among them, SeokJuMyeong was interested in the dialect of Jeju as a non-expert and collected the dialect of Jeju dialect. In the lexical aspect, a lot of data were collected, but no linguistic study was done. In terms of lexical terms, it also exposed many problems related to language origins. People who are unaware of this situation are citing another source of data and producing another problem.

After the liberation, scholars such as Lee Sung Nyeong, Kim Wan Jin, and Lee Ki Moon entered Jeju Island and conducted academic research and lef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 addition, Park Yong Hu and Hyun Pyeong Hyo collected and studied the dialect of Jeju.

*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After that, Gang Keun Bo, Kim Hong Sik, Kang Jeong Hee, Kang Young Bong, Song Sang Jo, Go Young Jin, Go Dong Ho, Jeong Seung Cheol, Oh Chang Myeong and Kim Sun Ja

As a result of the study of vowels, the problem of phonemes is that even researchers can not distinguish 'e' and 'ɛ' correctly and can not speak or write correctly. In addition, it is also the problem that the pronunciation and notation of 'ui'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researcher. There are also many problems with pronunciation and notation of 'ɒ' and 'jɒ'.

As a result of the study of the form, the notation of '-ams/eoms-' which is related to Aspect is also confused with notation.

The biggest problem with vocabulary is that the meaning is not being understood properly. The biggest problem with vocabulary is that the meaning is not being understood properly. It is also a problem that it is said that there is no gate(outer gate) in relation to Jeju culture, and it is also a problem that the word related to this gat(outer gate) is called 'Jeongnang'. Also, 'Jeongnang' is just an accessory of 'Jeong'. Even if the meaning of a word can not be interpreted perfectly, it should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customary communication, the expression of emotion, but also the unconventional part. But if you do not grasp the aspects of conventional communication, it will lead to wrong results.

Furthermore, the sentences of the dialect of Jeju should be properly expressed and informed. As long as the dialect of Jeju corresponding to the standard word 'eoseo-osibsio(Welcome)', which is used to welcome the politely, is called 'honjeo-obseo-ye', the dialect of Jeju is neither well studied nor conveyed properly. I did

not use Jeju dialect 'honjeo-obseo-ye' as a means to welcome politely.

It is also important to collect and record Jeju dialect properly. I hope that Jeju dialect studies using properly collected Jeju dialects will be done more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Keywords : Jeju dialect, phonemics, morphemics, grammar, lexicon

교신 : 오창명 63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3길 26, 108동 701호
(E-mail: garinyeo@naver.com)

논문투고일 : 2018. 07. 16
심사완료일 : 2018. 08. 06
게재확정일 : 2018. 08. 06